

讀者 확보 · 광고 활성화 위해 노력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8차 정기회의가 8월1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68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이웅) 제68차 정기회의가 8월1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포천신문 구독자 확보 및 광고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12월15일 개최되는 포천신문 창간기념식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 포천신문 가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창간기념식은 2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 윤이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복더위에 폭우가 내렸는데 위원님들의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지 궁금하다"면서 "많은 비가 내렸으나 다행히 포천지역은 재해가 높아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호열 발행인은 "휴가철 지루한 장마와 폭우, 그리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은 특별한 건강에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벌써 68차 정기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그동안 구독자 확보와 광고에 협조해 준 점에 대해 포천신문을 대표해 감사 드린다"면서 "운영위원들은 한가쪽으로써 그동안 다져온 친목이 끝까지 가고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신문이 되도록 포천신문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가장 맛있는 위원회로 발전' 다짐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하계 워크샵 가저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상일)는 8월14일부터 1박2일간 신정호수에서 하계 워크샵을 개최하고 특강 및 토론회와 위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최호열 발행인은 "가장 맛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위원장은 "잠마철이아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주변이 호수가로 수심이 깊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샵 특강은 하승환 본지 취재국장인 실시했으며 포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울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선택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1961년 11만명이던 포천시 인구는 2007년 16만으로 40년 동안 5만명의 인구가 늘어날 정도로 발전이 둔화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토론에서 김중현 조사위원회 고문은 "1년에 1억5천만원 규모의 직자를 감수하면서 지역에 언론으로 봉사하고 있는 최호열 발행인에게 감사드린다"며 "포천 사람이 눈과 귀가 되는 포천신문을 본토박이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을 위해 찬조해 주신 분들과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최호열 발행인 30만원 ▶박노설 부위원장 기념타월 250매(82만5천원) ▶이복용 고문 대형버스 지원(왕복) ▶천병구 부총무 10만원 ▶김중현 고문 10만원 ▶이찬우 위원 30만원 ▶이상일 위원장 20만원 ▶임상빈 부총무 20만원 ▶조정선 고문 20만원 ▶김형석 총무 15만원 ▶박혜자 주부 명예기자단장 맥주 2박스 ▶구광식 5만원 ▶손영배 5만원 ▶최두열 상임고문 매운탕 ▶남기숙 (주)엔알 커뮤니케이션 은나노 칫솔 30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8월14일부터 1박2일간 신정호수에서 하계 워크샵을 개최하고 특강 및 토론회와 위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모든 일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4대 박혜자 단장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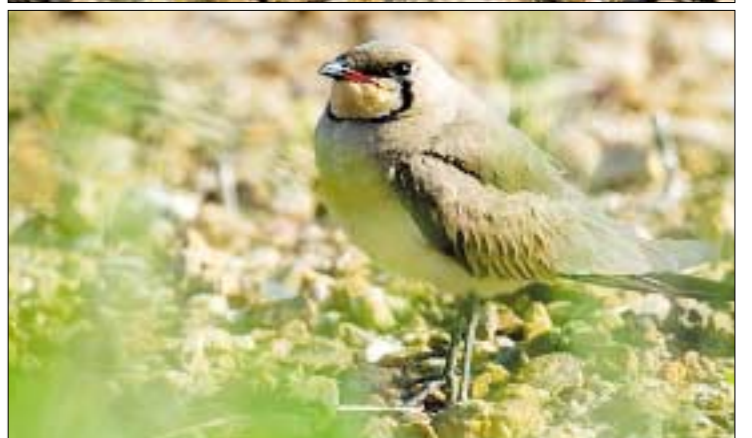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4대 박혜자 단장 취임식과 제23대 임경순 단장 퇴임식이 8월9일 오전11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4대 박혜자 단장 취임식과 제23대 임경순 단장 퇴임식이 8월9일 오전11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임경순 23대 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주부명예기자단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및 취재활동으로 남다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임원여러분들과 기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새롭게 선출된 박혜자 단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 박혜자 제4대 단장은 "모든 일을 처리하기 전에 주부명예기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기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언론으로 성장 발전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신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우리 모두 포천신문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독자 배가운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많은 독자가 있어야 그만큼 힘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최두열 포천신문 전무이사는 임경순 제23대 단장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하고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포천신문이 지향하는 언제나 바른 뉴스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주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바 사명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신임 임원 38명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앞으로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㉓ 제비물떼새 [Oriental Pratincole]

홍도에서 만난 나그네

'제비물떼새'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모가 날렵하게 생겼으며 날 때는 제비와 흡사하게 길고 뾰족한 날개를 보이며 다리는 매우 짧고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마세 락과 제비꼬리형 꼬리와 제비갈매기처럼 가벼운 비행모습을 하고 있는 매력적 넘치는 새입니다. 제비물떼새는 전 세계에 17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가끔씩 통과하는 나그네새로 1종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에 성공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웃 일본에서는 가끔씩 번식을 한다는 귀한 새가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밤새 차를 달려 목포항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5월12일 새벽 5시였습니다. 일기예보까지 확인하고 내려왔지만 여제원 영문인지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자 우리 일행은 걱정이 앞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2007. 5.13 흑산도에서 촬영

아침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니 다행히 주의보 상황이 아니라서 정상 출항은 가능하지만 운항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행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기 시작합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에 눈을 떠보니 벌써 흑산도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항구에서 들려오는 '흑산도 아가씨' 노래에 목격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간간히 내리는 빗방울을 빗살아 정비를 점검한 후 제비물떼새가 나타났다. 그 능선을 오르지만 익숙한 제비물떼새는 어디로 숨었는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오전 탐조 포인트로 가보았더니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제비물떼새 2마리가 풀이 전혀 없는 밭 한가운데 날아와 앉아 우리 일행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하려도 근처의 풀밭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발 주위만 맴돌고 있더군요.

이번 탐조에 함께 한 홍도철새연구센터의 K연구원에 의하면 "제비물떼새의 흥미로운 행동"이라고 하며, 자료를 확인해보니 풀밭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갈밭이나 흙땅을 좋아하므로 매립지나 간석지에서 번식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 농경지에서도 번식을 하다가 보니 경작과 더불어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제비물떼새는 중국 내륙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도 등지에 들러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 경유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철새들을 탐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 발견당시에는 먼 거리에서 날아와 많이 지켜 보았지만 잠시 머물러 체력을 보충하고 무사히 그들의 안전한 번식지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올 가을에 다시 이동하는 시기에 그들의 이쁘고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흑산도에 들려 잠시 쉬었다 갈 때 다시 재회의 시간을 가져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탐조는 한국야생조류협회의 정기총회를 겸한 의미 있는 탐조행사로 특히 5월은 여름철새들이 북상하기 위해 이곳 흑산도, 홍도 등지에 들러 체력을 보충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중간 경유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철새들을 탐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탐조기간 중에는 흰눈썹올새, 검은머리올새, 제비딱새, 노랑머리딱새, 휘파람새 등 103종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종의 새들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 포천
 Pocheon of Fortune!

2007년 포천시 호남 향우회 한마음 대축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호남인 친목의 한마당 감동과 축제의 만남

- ◆ 일 시 : 2007년 9월 9일(日) 개최식 14:00
- ◆ 장 소 : 포천종합 운동장(실내체육관)
- ◆ 주 관 : 포천시 호남향우회
- ◆ 후 원 : 포천지회, 송우지회, 가산지회, 영중지회, 영북지회, 일동지회, 이동지회

- ◆ 인기가수 송대관 초청쇼
- ◆ 남보원 등 방송인 다수 출연
- ◆ 품바(각설이 공연)

- ◆ 노래자랑(최우수상 1명 대형냉장고)
(우수상 1명 대형세탁기)
(장려상 2명 28인치 TV)
(인기상 2명 압력밥솥)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함께하는 호남인, 참여하는 하나의 호남인 ◆